국학자료원

손혜경 편집부

전통사회 학술문화의 보고, 서원이란 이것이다

처음 경기지역의 서원들에 대하여 한 권의 책으로 발간하기까지 많은 망설임이 있었다. 무엇보다 옛 서원들에 관한, 어찌 보면 고리타분해 보일 수 있는 이 책이 21세기를 사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었지만, 우리 '국학자료원'이라는 출판사가 아니면 그 누가 이런 도서를 발간할 수 있겠냐는 자부심(?)에서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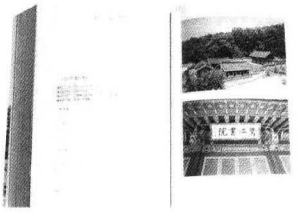
한국의 서원은 조선조 전기인 중종中宗 38년(1543) 창건된 경북 영주시 순흥의 소수서원을 효시로 조선조 유학과 궤軌를 같이 하며 조선조 전·후기에 걸쳐서 발전해 온, 우리나라의 대표적 역사 문화유산의 하나이다. 서원은 수학, 수기, 교육, 교화, 존현의 상아탑이었을 뿐만 아니라 서책이 희귀하였던 당시 사회에 있어 전적의 보장, 서책의 출판 등으로 문화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전통사회 학술문화의 보고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경기도 지역에는 크고 작은 유·무형의 서원이 약 40여 개 정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중에는 원래의 모습을 간직한 서원들도 있지만 철폐되었거나 훼손되어 공터만 남아있는 곳도 있다고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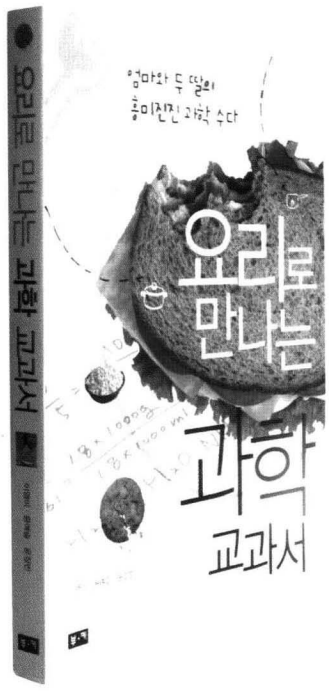
이 책은 경기대학교 소성학술연구원에서 2003년 4월부터 1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모든 서원을 직접 답사하고 문헌·사료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보완, 정리함으로써 사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을 실었다. 또 전문적인 사진작가에게 촬영을 의뢰해 올컬러로 들어간 사진은 현장에서 눈으로 직접 보는 것처럼 생생함을 살렸다. 또한 지도 및 설계도는《해동지도》《경기도 향교·서원 건축조사보고서》등의 자료를, 경기지역 서원 일람표 및 서원연표는《여지도서》《증보문헌비고》《대동지지》《동유서원총록》《조선왕조실록》등에 의거하여 작성, 내용의 정확성을 살렸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책에 대한 반응은 미미하다. 처음의 우려와 같이 사람들의 흥밋거리를 자극할 만한 소재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 책은 흥미로운 내용의 쉽게 읽힐 수 있는 책은 아니다. 한국서원의 발달과정과 경기지역 서원의 정치·사회사적 특징들에 관한 논문들과 경기지역의 사원들에 관한 내용들만 쭉 열거되어 있어 자칫 그 내용이 따분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책은 그러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최근 출판업계의 불황으로 판매율을 높이기 위해 대중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지극히 가벼운 내용의 도서들이 많이 출간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지역의 서원에 대한 학술조사의 결과물인《한국의 경기지역 서원》의 발간은 유교문화 유산의 하나인 우리 서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관심을 갖고, 보존과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깨우치게 되는 발판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한국의 경기지역 서원》
경기대학교 소성학술연구원 지음 | 국학자료원 | 533쪽 | 값 39,000원



부키

편집장_장미숙

"선생님, 무리하지 마시고 가능한 것만 하시죠."

비가 엄청 쏟아지는 토요일 아침. 이사하는 사장님을 빼고 식구 모두가 저자 강연회가 열릴 대구로 떠났다. 우린 수다도 떨고 잠도 자고 여유 있는 척 내려가지만 내심 걱정이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어쩌지, 바쁜 시간을 내 가족 모두 오시는 선생님께 면목이 안 설 정도면 어쩌지, 관객이 없으면 우리가 질문을 해야 하나….

영업자를 앞장 세워 대구 교보문고 매장을 둘러보고 강연회 홍보지를 돌렸다. 가방 들랴 우산 잡으랴, 비는 오고 옷은 젖고 누가 선뜻 전단지를 받으려나. 하지만 씩씩한 우리 직원들, 일당짜리 아르바이트라도 했었나 싶게 능숙한 호객행위에 나섰는데, 책 내용까지 일일이 설명하는지 일대일로 붙들고, 대단하다. 나중에 교보문고 직원까지 "저 사람들 누구예요"라며 감탄했다는 후문.

일어서서 일일이 머릿수를 세던 공동필자인 초등학교 2학년 정빈의 염려 덕분인지 다행히 빈자리 거의 없이 학부모들과 학생들로 꽉 차고 엄마들의 질문도 나오고 제법 분위기가 좋았다. 무대 체질이라 자랑하는 이영미 선생님은 비가 오는 날씨에 맞게 마찰력으로 서두를 열며 과학이 얼마나 우리 생활과 밀접한지를 설명하셨다.

마무리를 하고 근처 레스토랑에 가서 차와 저녁을 먹었다. 그 자리에서 이 선생님이 들려준 책 내기 전 비하인드 스토리 한 토막. 요리로 과학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며 신이나 예의 달변으로 과학개념을 줄줄이 얘기했더니, 사장님의 시큰둥한 반응. "글쎄요. 요리로 설명할 수 있는 과학개념이 뭐 그리 많겠어요. 무리하지 마시고 가능한 것만 하시죠."

필자에게 그런 말을 한 대담한 사장님도 그렇고, 그런 무례한 얘기를 듣고도 "참 매력적인 분이야"라고 웃으시는 선생님도 그렇고…. 하지만 제3자인 우리는 사장님의 진의를 수습하기에 진땀났다.

이 책은 알고 지내던 잡지사 기자로부터 이영미 선생님을 소개받고 "야, 그거 재밌겠는데"란 한 마디에 진행되었다. 제목을 정하는 데만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설문을 하고, 회의를 10여 차례나 하고도 모자라 '내일 다시 한 번 더'를 거듭했다. 필름을 넘기기 마지막 날 밤, "고구마는 이쪽이 더 맛있어 보이고 주변 배경은 이 사진이 더 낫고, 아무래도 안 되겠는데 어쩌지?" 하며 눈치를 슬슬 보며 중얼거렸더니, 짝 째려보는 디자이너. 그러나 어쩔 것인가. 2시간 동안 고구마를 갖다 붙이며 장난(?)을 쳐야 했다.

과학이라면 겁부터 먹는 내가 독자들을 대표해 "선생님, 이 부분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설명이 필요할 것 같네요"라며 늦은 밤 전화를 넣으면 30분이 안 걸려 일일이 설명한 후 문장을 고치는 열정을 보여 준 필자. 이 책은 엄마와 아이들이 요리를 매개로 어렵게만 느꼈던 과학개념을 생활 속에서 알아나가고, 서로 대화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리라.

《요리로 만나는 과학 교과서》
이영미·윤예슬·윤정빈 지음 | 부키 | 280쪽 | 값 9,800원

숲

강규순_편집장

오리지널 그리스 신화와 나눈 황홀한 사랑의 흔적

원고를 이메일로 받아 검토하고, 출간에 앞서 조율할 조건들도 이메일을 통해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 책 만드는 과정에서 생기는 내용상의 의문도 그렇게 푼다. 그렇다고 저자가 꼭 지방에 살거나 외국에 체류중인 것은 아니다. 이것이 무슨 노릇인가 싶기도 하다. 한 권의 책을 공동 작업으로 만든 편집자와 저자가 길에서 만나도 서로 몰라보고 지나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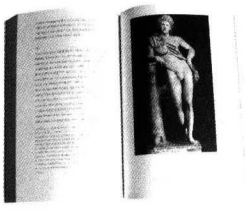
이렇게 출간되어 저자에게 택배로 보낸 기증본 중 한 권이 되돌아온 일이 있었다. 저자가 고마운 마음을 담아 편집자에게 사인을 해 보낸 것이다. 완성된 책을 보러 오는 저자에게 책에 사인을 받는 일은 출판사의 흔한 풍경이지만 저자에게 나간 10권 남짓의 기증본 중에 한 권을 이렇게 다시 보내는 저자는 드물다.

앞뒤를 다 잘라 먹고도 시침을 뚝 떼는 쿨한 디지털 작업 환경이 불만인 나는 다시 돌아온 그 책이 무척 반가웠다. 그동안 저자를 못 만나고 그래서 더 힘들었던 작업과정의 아쉬움도 한순간에 날아갔다. 노老교수의 자상함도 남달랐지만 자신이 만든 책이 잘 나가는 책의 반열에 오르지 않는 이상 누구도 들어주지 않고,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는 쓸쓸한 사랑의 기억은 그 사랑이 치열했던 것만큼 아프게 잊혀지기 마련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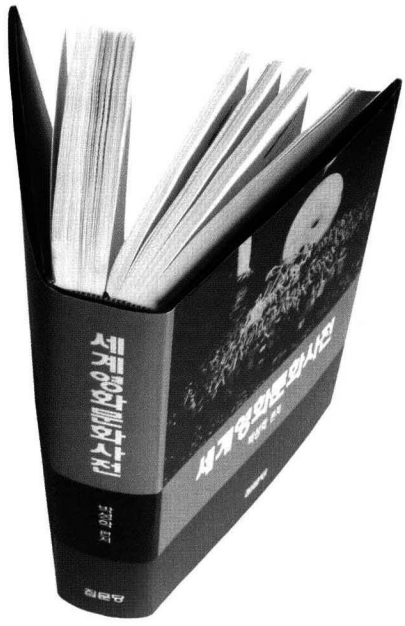
어느 날 그 선생님께서 전화를 주셨다. 나는 편집자 생활을 접고 출판을 해보겠다고 몇 권의 책을 내놓은 채 진땀을 흘리고 있었다.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소식을 듣고 직원에게 연락처를 가르쳐달라고 해서 전화하는 거예요." 얼굴은 모르지만 반가운 목소리였다. 나는 선생님을 찾아뵙고 원고를 받았다. 물론 선생님의 얼굴도 보았다. 고대 그리스 문학을 번역 소개하다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갔다는, 정년퇴직을 바라보는 노교수의 선한 눈매에 반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렇게 우리 출판사로 온《원전으로 읽는 그리스 신화》는 후대 사람들에 의해 가공되기 이전 고대 그리스인이 쓴 그리스 신화 안내서였다. 별자리 이야기나 변신 이야기 등 한 부분을 담고 있는 기존 책들과 달리 그리스 신화 전체를 다루고 있었다. 그리스 신화의 많은 가공품들이 있지만 일차 문헌들을 자의적으로 재구성한 짝퉁이 그리스 신화의 진품처럼 취급되고 있는 우리의 출판계를 생각하며 출간을 결정했다. 그리스 신화의 초기 형태를 고스란히 전해주고 있는 믿음직한 정보들이 신화의 물줄기를 거슬러서 그 원류를 탐사하려는 독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원고에 푹 빠져 지냈지만 정해진 시간 안에 책을 만들려고 시간과 원고를 상대로 씨름하지 않았다. 책이 담고 있는 내용을 독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고심했다. 한동안 그 원고 말고 다른 것은 보이지 않았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을까? 책을 보면 오랫동안 황홀한 사랑을 나눈 흔적을 확인할 수 있겠지만 사랑의 빛은 지금 그리스 신화 마니아 사이로 점차 퍼져나가고 있는 중이다.



《원전으로 읽는 그리스 신화》
아폴로도로스 지음 | 천병희 옮김 | 숲 | 456쪽 | 값 26,000원



집문당

성인숙_편집장

세계 영화문화를 개관하는 국내 최초의 본격적인 영화사전

오늘날 영상문화에 대한 관심은 영화계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문화의 기틀이 되는 기초서적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것이 우리 영화계와 한국출판계의 현실이었다. 이런 가운데 뒤늦게나마 세계영화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사전이 햇빛을 보게 된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적재산권에 섬세한 반응을 보이는 구미인을 상대로 희귀한 사진 등 수많은 자료를 수록하기 위해 밤낮 없이 동분서주한 저자의 열정이 아직 잊혀지지 않는다. 우리의 외래어표기법과 번역이 장차 문제로 떠오를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하여 영화명 등의 외국어를 직역하자던 저자의 주장도 기억에 생생하다. 외국에 계신 때문에 문의메일을 보내면 언제나 정성껏, 그것도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빠른 답변을 보내셨던 저자의 열의는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추억이다.

이 사전은 2,900여 항목의 방대한 분량으로 ① 각국의 주요한 영화관계 기관 및 제작사, 스튜디오의 약사와 영화제, 영화상 ② 영화 장르별 분류 ③ 주제 및 소재별 작품 소개 ④ 영화용어, 영화기법 및 장비 ⑤ 할리우드 중심의 영화 마케팅 및 계약, 파이낸싱 용어 ⑥ 영화운동 및 영화역사와 관련된 사항 ⑦ 50개 주요 영화제작국의 영화역사 ⑧ 할리우드문화 이해와 영어권 각종 전문지 및 업계지를 읽는 데 필수적인 영화매체에 관련된 신조어·전문어·관용어·토막말 ·슬랭을 수록하고 있다.

영화를 사랑하는 '마니아'는 물론, 영화산업으로 자신의 꿈을 펼치려는 분들에게 참으로 값진 선물이다. 특히 저자가 미국에서 특수효과장비 임대업과 영화제작에 참여했던 경험을 살려 할리우드의 산업, 계약문화 등 실무와 관행을 자세히 소개한 것은 세계무대로 진출하고자 하는 영화 문화인을 위한 길라잡이로도 손색이 없다.

한국은 자국영화 점유율이 미국 이외의 시장에서 유일하게 50퍼센트대를 넘어서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영화관계 학과가 상당히 많은 나라이고, 중국·일본 등지에서의 한류열풍을 타고 한국상품 이미지가 바뀌고 있다. 이에 우리는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선양하고, 지속적으로 문화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문화에 밑거름을 주고 굳건히 버틸 수 있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산업의 기틀이 되는 기초학문 확립은 그래서 더욱 절실한 과제가 아닐 수 없고 그 기초학문의 기본이 되는 문화사전을 보물이라 칭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세계영화문화사전이 영화문화를 사랑하는 모든 이의 서가에 당당히 자리할 날을 기대해 본다.

《세계영화문화사전》 박성학 편저 | 집문당 | 1,192쪽 | 값 60,000원